



특집 \_ 한인 정치력 신장 논의...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서 열려  
 기획 \_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코리아’는 ‘아름다운 나라’ 뜻해요"  
 화제 \_ 20년간 288명 싱글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준 미국 한인  
 재외동포재단,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초청 워크숍 첫 개최





# 재일 제주인의 삶과 정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

“재계재계들 오라”(빨리빨리들 와라), “어디 감수광?”(어디 가세요?), “뚝부뚝 따오라이~”(꼭 붙어 따라와라~), “몽캐지마 랑 오라”(꾸물거리지 말고 와라).

제주인이 아니면 어느 나라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이들 대화는 올해 3월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 속 대사의 일부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드라마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떠났던 이민자 가족 4대의 파란만장한 삶을 잘 그려냈다.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선자가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첫날, 행인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나는 깜짝 놀랐다. 너무나도 완벽한 제주말과 억양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나오는 제주 사투리는 제주 토박이들로서는 듣기 민망할 수준으로 어색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일본 이주 제주인들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일본 오사카 이주민 사회 구성원 절반 정도가 제주 사람이었다고 한다. 제주 사투리를 드라마 곳곳에서 들을 수 있던 것도, 남자 주인공 이민호가 맡은 고탄수 역이 제주 출신으로 그려진 것도 우연이 아니다. 드라마 제작진이 원작소설에도 없는 제주 출신 고탄수 부자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룬 것 역시 당시 일본에서 이주 제주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910년대 일제의 농지 수탈로 시작된 제주인의 오사카 이주는 1922년 제주와 오사카 간 직항 여객선인 군대환(君代丸, 기미가요 마루)이 취항하면서 크게 늘어 1934년에는 오사카로 건너간 제주인이 무려 5만 명으로 당시 제주 인구의 4분의 1이나 됐다고 한다.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군대환을 타고 제주인들이 오사카로 이주를 시작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됐다. 그들은 조선인이란 이유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 가며 현지 유리공장, 고무공장, 봉제공장 등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견뎌내야 했다. 또 막노동과 광부, 행상 등 갖은 험한 일을 마다치 않고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덧 한 세기 세월이 흘러 5만 명이던 재일 제주인은 몇 세대를 거쳐 10만 명에 이르렀고, 통한 어린 재일 제주인 시련 역사의 한 조각을 드라마 ‘파친코’가 드러내 보인 셈이다.

제주도에는 마을 어귀마다 ‘○○○ 송덕비’, ‘○○○ 공덕비’와 같은 크고 작은 비석들이 세워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비석들

은 마을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다. 이들 공덕비 주인공의 대다수가 재일 제주인이다.

고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재일 제주인들의 송금으로 마을에 전기와 수도가 설치됐고, 도로가 새로 깔렸으며, 많은 초·중·고교가 건립됐다. 1965년부터 1979년까지는 오사카에서 제주로 감귤 묘목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 덕분에 감귤은 오늘날 제주의 상징으로 부상했고 제주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

국립 제주대학교는 2010년 ‘재일제주인센터’를 설립해 희미해져만 가는 재일 제주인들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한편, 이들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규명해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제주대는 재외동포재단과도 힘을 합쳐 근현대의 제주 역사인 재일 제주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오늘의 발전한 한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재외동포들을 기억하며, 소외된 재외동포 사회와도 연대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02 권두언      제일 제주인의 삶과 정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 04 특집        한인 정치력 신장 논의...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서 열려
- 06 기획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코리아’는 ‘아름다운 나라’ 뜻해요”
- 08 화제        20년간 288명 싱글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준 미국 한인  
                  재외동포재단,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초청 워크숍 첫 개최
- 10 한민족 공감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역할 강조  
                  미국서 첫 ‘한인 부지사’ 탄생하나... 하와이주서 가능성 커
- 12 글로벌 코리안      조선족 종의약 교수, 중국 정부로부터 ‘국외대사’ 칭호 받아  
                  한인 1.5세 변호사, 미국 워싱턴주 ‘라이징 스타’에 선정  
                  브라질 동포 손정수 씨, 포르투갈어 한식 요리책 첫 발간
- 14 유공 동포        ‘임정의 아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별세
- 15 주목! 차세대        캐나다 동포 신용구, 코리안투어에서 ‘코리안 드림’ 이뤘다
- 16 지구촌 통신문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올려 퍼진 한류
- 18 동포소식        재외동포재단, ‘2022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개최 외
- 20 문화유산        경북 고령군 ‘자산동 고분군’, 대가야로 떠나는 여행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제주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 24 동포 캘린더        11월 오사카서 고대 한일교류 기념 ‘시텐노지 왓소 축제’ 외
- 25 기고문        한국에 혼자 남은 고아  
                  이경자 소설가
- 26 재단공지        ‘2022 코리안 페스티벌: 120년의 꿈’을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발행인: 김성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 정치력 신장 논의...

##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서울서 열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주최 · 재외동포재단 후원... 13개국 70명 참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의 평화와 번영, 각종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논의하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8월 16~19일 나흘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섞어 열린 행사에는 13개국에서 총 70명의 한인 정치인이 참가했다.

16일 열린 개회식에는 캐나다 최초의 한인 의원인 연아 마틴 회장을 비롯해 뉴질랜드 최초 한국계 5선 의원인 멜리사 리 연방의원, 지난해 시의회 역사상 최고 득표를 기록하며 당선된 김태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시의원, 입양 한인인 세릴 마이어스 미국 오리건주 국무차관, 카자흐스탄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의원인 김베라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독일 연방의회 최초 아시아인이자 한국계인 이예원 의원, 지난해 11월 뉴욕시 최초 아시아계 여성 시의원에 당선된 린다 이 의원, 스티브 강 미국한인민주당협회 회장 겸 로스앤젤레스 도시계획위원회 커미셔너, 변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 비서실장 수석 고문 등도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은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연아 마틴 회장의 개회사와 김홍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의 축사,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연아 마틴 회장 "높아진 고국 국격에 맞는 한인 정치력 신장 모색하자"

연아 마틴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인정치인포럼은 우리의 역사와 유산, 문화, 민족성을 바탕으로 많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원동력이자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모국과 세계 평화 번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높아진 모국의 국격에 맞는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Beautiful Koreans'(아름다운 한국인)을 주제로 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코리아의 어원인 '고려'라는 한자는 '높을 고(高)', '고을 여(麗)로 '매우 아름답다(very beautiful)'라는 뜻"이라며 "세계인들이 우리를 '코리아'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너희 민족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사 이틀째인 17일에는 '한인 정치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각자의 도전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마크 김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벌였다. 또 '국제사회 갈등 속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인 정치인의 역할 모색',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인 정치인들의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 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찾은 참가자들 "선열의 희생과 호국정신에 감사"

18일에는 대한민국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우리 민족



의 자주독립 정신과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한인 정치인들은 서대문형무소 옥사 내부를 돌아보고 체험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선열들의 희생과 호국정신에 그저 감사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아 마틴 회장은 특히 “이번 문화 탐방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선열들의 희생과 역사를 알게 된 순간이어서 아주 감동적이었다”며 “선조들의 자유와 광복을 위한 고통과 송고한 희생, 피와 땀, 눈물이 지금 우리 후손들의 자유를 위한 기초가 됐다”고 강조했다. 연아 마틴 회장은 서대문형무소 방문 때 이성현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형무소 역사를 담은 영문 안내 책자를 선물로 받았다.

이번 포럼 최연소 참가자인 변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 비서실장 수석 고문은 “태어나서 처음 둘러본 서대문형무소와 전쟁기념관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 무언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감사와 감동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어느 때보다 고국 대한민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정태 호주 라이드시 시의원은 “전쟁기념관에서 6·25 한국전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흔적과 이들의 편지를 보면서 동족 간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음을 생생히 느꼈다”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있게 해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후 ‘더 어울림 토크콘서트’를 통해 선후배 정치인 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포럼은 19일 차기 포럼 준비와 차기 임원진 선출 등을 진행한 뒤 폐회식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송 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

리했다.

한편 멜리사 리 뉴질랜드 연방의원은 행사 기간 별도의 언론 인터뷰에서 “백인이 주축인 뉴질랜드에서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인종차별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사대주의 극복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굽히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는 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을 혐오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세계 각국에서 퍼지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차별과 부정적 선입견 해소를 위해 한인 정치인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한 한인 정치인 70명이 8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8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회 회장(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3. 8월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호텔에서 개최한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4.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한 멜리사 리 뉴질랜드 연방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코리아’는 ‘아름다운 나라’ 뜻해요”

## “‘홍익인간’ 정신 바탕 제2 건국 운동 펼치자” 주창



1

1. “홍익인간’ 정신 바탕 제2 건국 운동 펼치자”고 주창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린 제5회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아름다운 한국인(Beautiful Koreans)”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는 8월 16~19일 나흘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재단 주최로 열린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의 주제도 이것으로 정했다.

김 이사장은 16일 포럼 개최식 직후 한 특별강연에서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멜리사 리 뉴질랜드 연방의원 등 세계 13개국에서 온 70명의 한인 정치인들에게 이 표현의 뜻을 설명하면서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바탕으로 ‘제2 건국 운동’을 펼치자”고 주창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17일 별도의 언론 인터뷰에서 “태조 왕건이 고구려의 뒤를 이으며 ‘고려(高麗)’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서양에 전해지면서 ‘코리아’로 불리게 됐다”며 “여기서 고려라는 한자는 ‘높을 고(高)’, ‘고울 여(麗)’로 ‘매우 아름답다(very beautiful)’라는 뜻이다. 따라서 코리아는 ‘아름다운 나라’, 코리아인은 ‘아름다운 사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코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너희 민족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도 이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분단은 한민족 전체의 운비를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강조한 그는 “77년째 분단된 채 서로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휴전상태로 남아있는 현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코리아’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민족 고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온전한 한민족 국가를 세우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 건국 운동’에 전 세계 재외동포가 중심이 되고 앞장서기를 당부하면서 “한민족의 평화통일은 인류 평화를 위한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그는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가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시사점도 제시했다.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와 전 세계 유대공동체의 열의를 보며 한민족의 결속력에 대한 반성과 우리나라 동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2

###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청, 산하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하자”

김 이사장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동포청의 목표가 각종 한인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 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동포들의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듯이, 우리도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어 온전한 한민족 국가를 만드는 더 크고 근본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언도 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함께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고, 현재 재단이 추진 중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그 산하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은 정부 기구이므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재외동포 프로그램을 이 센터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청장이 실무 책임자가 되는 실질적인 콘트를 타워가 돼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명칭도 세계 코리안을 아우르는 기관을 대변하려면 ‘재외동포청’ 보다는 ‘세계한인청’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과거지향적인 ‘재외동포’라는 용어는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나간 사람만

을 지칭하지만, 차세대 동포들인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프랑스인 등을 포괄하려면 ‘세계 한인’이 더 미래 지향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차세대 동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동포 교육은 놀라워요. 매년 연 5만 명의 해외 청소년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시킵니다. 1천500억 원 예산의 3분의 2를 해외 재외 동포들의 모금으로 충당합니다. 이밖에 다양한 차세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매년 1천여 명 초청에 예산도 5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이 유대 나라의 건설과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국내외에서 강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홍익인간에 기반한 한민족 통일과 건국 철학, 한민족의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20년간 288명 싱글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준 미국 한인

김예자 '리아 암스트롱 재단' 이사장, 총 5억7천만 원 지급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 대학생에게 20년간 장학금을 지원해온 재미동포가 있다. 주인공은 리아 암스트롱(한국명 김예자·80) 씨로, '리아 암스트롱 장학재단'(LASCO)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재단은 8월 11일(현지시간) 올해 선정한 14명의 싱글맘 대학생들에게 각각 2천 달러(약 26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학금 수여식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원래는 장학금을 줄 때 음식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식사비 200달러(약 26만원)를 별도로 지급했다.

온라인 수여식에서 대학생들은 자기소개를 한 뒤 장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재단 이사진 및 설립자와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자신이 선정한 학생의 평생 멘토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LASCO 이사장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88명에게 44만1천 달러(약 5억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면서 "수혜 대학생 대다수가 학업을 잘 마친 뒤 어엿한 전문직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LASCO 재단은 인종과 나이, 성별, 종교,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워싱턴주 내 터코마시를 포함해 18개 시에 거주하는 싱글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국제결혼으로 미국에 이민한 김 이사장은 "저는 이민자를 배려하는 미국인들과 그 사회구조에 힘입어 차별받지 않고 공부했다"며 "1970년대 보잉사에서 유색 여성 이민자로서 처음으로 매니저로 진급했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벌써 59년째 접어든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오랫동안 미국과 미국인들로부터 많은 혜택과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으니 앞으로도 사회 환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빛을 갠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경북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다가 1964년 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이민했다. 1976년부터 재미대한부인회 회장과 이사장을 맡아 봉사했고, 세계국제결혼 여성총연합회(World-KIMWA)를 창립해 회장을 맡기도 했다.



'리아 암스트롱 장학재단'(LASCO) 이사장인 리아 암스트롱(한국명 김예자) 씨

김 이사장은 '한반도 전문가'로 불리는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어머니이자, 유엔본부 윤리국장인 엘리자 이 암스트롱의 시어머니다.

그는 워싱턴주 최대 간병 서비스 회사인 '암스트롱 홈인케어사'를 창업했고, 재투자를 위해 '암스트롱 투자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2003년 사회 환원을 위해 LASCO 재단을 설립했다.

2017년 터코마시로부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The Key to the City'를 받았고, '터코마시의 영웅', '터코마시의 훌륭한 자선가'로도 뽑혔다. 우리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했다. **[장]**

# 재외동포재단,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초청 워크숍 첫 개최

13명 참석... 사흘 간 한글학교 발전방안 모색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대표들이 고국에 모여 전 세계 한글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15~17일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에서 '2022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초청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유럽한글학교협의회,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등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 운영 상황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유관기관인 교육부·국립국어원·세종학당재단 실무자와 간담회에서 한글학교 교재 개발과 보급, 교원자격제도 운용 등과 관련된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국내 최초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를 방문해 대표를 만났다. 한국의 교육발전상을 체험하고, 한글박물관 견학,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와 동포재단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연초 대륙별 한글학교 관계자와의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간담회에서 "현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재단과 유관기관에 잘 전달되고 사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이 중심이 된 한글학교협의회 모임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단이 올해 처음 마련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올해 첫 모임이 마중물이 돼 앞으로 한글학교가 동포사회의 중심점이자 글로벌 인재 육성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륙별 한글학교와 소통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



1



2

1.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8월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2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초청 워크숍'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 8월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2 대륙별 한글학교협의회장 초청 워크숍' 후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역할 강조

## 유튜브 채널 재외동포재단 TV서 “재외동포, 최고의 민간 외교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서 재외동포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이사장은 8월 26일 유튜브 채널 ‘재외동포재단TV’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공외교 개념을 소개한 뒤 “750만 재외동포들은 양국(한국과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에서 모두 익숙해 보수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민간 외교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홈페이지는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하고,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해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 감동을 줘 긍정적인 이미지들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공공외교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알려야 하는데, 1년 365일 매일같이 그 나라 국민들과 어울려 사기는 절대 쉽지 않다”면서 “외국 국민들과 어울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전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한민족 재외동포의 역사는 약 150년 정도 되며, 이들은 어려운 시절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해외에 정착했다”고 상기한 뒤 “그러나 이들의 후손들이 잘 성장해 지금은 자랑스러운 글로벌 코리아로서 각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 방향을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 구현 ▲태극기 정신 구현 ▲한국 문화 사랑과 세계 문화와의 적극적 교류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홍익인간 정신 구현과 관련해 그는 “단군 할아버지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우면서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라’는 뜻의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삼으셨다”면서 “이는 우리 한민족끼리만 잘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살라는 가르침으로, 오늘날 유엔이 강조하는 ‘세계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과 통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태극기 정신 구현과 관련해서는 “태극과 건곤감리(하늘·땅·물·불 상징) 4괘로 이뤄진 태극기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인간이 나아가길 길을 밝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주역(周易)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서 “(한국이) 주변 모든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기를 꿈꿔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한 나라의) 세계적 영향력은 무력이 아닌 문화로 이뤄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면서 “마침 K-팝 등 한류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만큼 재외동포들이 각 거주국에 이를 전파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문화도 열심히 배움으로써 국제적 이해를 높이는 쌍방향 외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창]

# 미국서 첫 '한인 부지사' 탄생하나... 하와이주서 가능성 커

## 민주당 후보 실비아 장 룩 주하원의원, 자쉬 그린 주지사 후보와 동반 출마

**한**인의 미국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미국 주(州)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에서 태어나 10살 때 가족과 함께 하와이주로 이민한 실비아 장 룩(한국명 장은정·55) 주 하원 재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하와이주 민주당 부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장 의원은 같은 당 주지사 후보인 자쉬 그린의 러닝메이트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 도전한다. 상대는 공화당의 제임스 아이오나 주지사, 세아울라 투파이 부지사 후보다.

장 의원은 선거 캠페인 사이트(www.sylvialukeforlg.com)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이며, 여러 번 선거를 치른 경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 하원의원 경력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다리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가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면 미주 한인 이민 역사상 첫 부지사에 오르는 한인이 된다. 미국 한인 이민 역사는 1902년 12월 22일 한인 121명이 제물포항에서 갤릭호에 탑승, 하와이 호놀룰루를 향해 출발했던 것에서 시작한다.

장 의원은 1998년 제26 지구에서 주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2013년까지 내리 당선됐다. 이후 제25 지구로 지역구를 옮겨 현재까지 주 하원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4년간 주 하원에서 일하면서 부의장, 전쟁대비위원장, 재무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와이주가 민주당 텃밭이기에 장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후 지금까지 하와이 주지사는 총 8명 중 6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신수경 하와이 한국일보 지사장은 "하와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현역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당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린 주지사 후보는 2004년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됐고, 2008년 상원의원에 선출됐다. 2018년 부지사에 뽑혔다가 이번엔 당내 경선에서 63.73% 득표율로 주지사 후보에 올랐다. 난청으로 태어나 두 살 되던 해까지 특수 시설에서 지낸 그린 후보는 지지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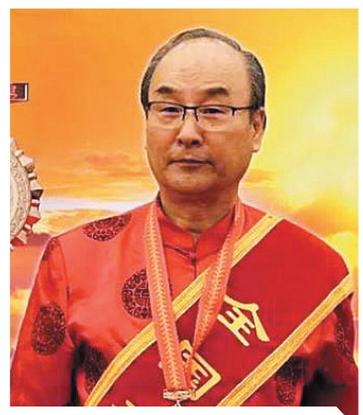
미국 하와이주 부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실비아 장 룩(한국명 장은정) 주 하원의원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지사 후보는 2013년부터 하원 재무위원장을 지낸 경제통으로, 언론에 노출된 빈도가 높아 공화당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분석도 많다.

그는 현지 교사협회(HSTA)를 비롯해 주립대학교수협회, 공무원협회(HGEA), 미장·시멘트석공조합, 배관·수리공 로컬 675, 민주적 행동을 위한 미국인(ADA), 공공근로자협회(PWP), 건설계약자협회(GCAH)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장 부지사 후보는 하와이대와 샌프란시스코대 법대를 졸업하고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주 하원에 진출했다. 2003년에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획득과 하와이 한인사회가 추진하던 무비자 입국 허용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장]**



## 조선족 중의약 교수, 중국 정부로부터 ‘국의대사’ 칭호 받아 남정 창춘중의약대 부속병원 교수… 2009년 이후 지린성서 4번째

조선족 중의약 교수가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의대사(國醫大師)’ 칭호를 받았다. 남정(南征·80) 창춘(長春)중의약학대 부속병원 교수는 최근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수여하는 ‘국의대사’ 칭호를 받았다고 연변일보가 8월 9일 전했다. 칭호 수여식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남 교수는 56년간 중의약 발전에 기여했고, 제1기 전국 명중의에 선정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원로 중의사들의 의술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5년마다 국가급 문화자산으로 중의약 임상 대가를 선정하고, 국의대사 칭호를 부여해 표창한다. 중국 각 지역에서 추천된 중의사 가운데 ‘2심3공시’(2번 심사하고 3번 공시하는 제도)를 통해 30명을 선정한다.

남 교수는 제4기 국의대사에 뽑혔다. 중국 전체 120명 가운데 한 명이다. 중국 지린(吉林)성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임계학, 류백령, 왕렬에 이어 4번째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 출신인 남 교수는 창춘중의약대 종신교수이며 이 대학 부속병원 주임의사이자 교수, 박사생 지도교수다. 특히 당뇨병과 그 합병증에 관한 연구와 치료의 권위자다.

그는 ‘당뇨병신병’이란 논문으로 ‘중의약학 명사’에 수록됐다.

## 한인 1.5세 변호사, 미국 워싱턴주 ‘라이징 스타’에 선정 ‘슈퍼 로이어스’ 잡지, 이승영 부동산·비즈니스 전문 변호사 뽑아

한인 1.5세 변호사가 미국 워싱턴주에서 발행되는 잡지 ‘슈퍼 로이어스’(Super Lawyers)가 선정한 올해의 ‘라이징 스타’(뜨는 별)에 올랐다.

최근 이 잡지 홈페이지와 동포 매체들에 따르면, 주인공은 시애틀에 있는 ‘리얼 프로퍼티 로그룹’(Real Property Law Group) 소속 이승영(미국명 세릴 리) 변호사로,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서비스한다.

이 잡지는 매년 워싱턴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가운데 분야별로 새롭게 뜨고 있는 변호사들을 라이징 스타로 뽑아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워싱턴주 변호사들 가운데 2.5%만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기쁘다”며 “한인사회와 주류 사회를 위해 더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그는 현재 한인생활상담소 이사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시애틀타임스로부터 ‘워싱턴주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6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그는 9살 때인 1976년 부모와 미국으로 이민했고, 워싱턴



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보잉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1997년 현지 동포사회의 추천을 받아 워싱턴주 쇼어라인시 시의원에 출마해 아시아계 최초이자 최연소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다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워싱턴대 로스쿨에 입학했고, 졸업과 함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 브라질 동포 손정수 씨, 포르투갈어 한식 요리책 첫 발간 국·밥·반찬·후식 등 50개 요리 담아... '한식 알리기'도 앞장

'한식 알리기'에 앞장서 온 브라질 한인 1.5세가 포르투갈어로 쓴 한식 요리책을 최근 현지에서 펴냈다.

브라질에서 한식을 알리는 사이트 '반찬닷컴브라질' (banchan.com.br)을 운영하는 한식 연구가 겸 칼럼니스트인 손정수 씨는 지난 5년간 기획하고 준비한 '한식, 손정수의 레시피 50'을 최근 출간했다.

반찬닷컴브라질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착한 브라질 이야기'에 따르면, 이 책은 국과 밥, 반찬, 면, 김치 등 기본 한식뿐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류와 떡볶이, 부대찌개, 호떡 등 50가지의 한식 만드는 법을 담았다.

또 브라질에서 한식을 알리게 된 계기, 한국에서 나올 요리와 계절 음식이 발달한 이유 등 한식의 특성과 역사도 실었다. 그동안 현지 매체에 출연해 알린 음식과 요리 교실 수강생들에게 전수한 한식 등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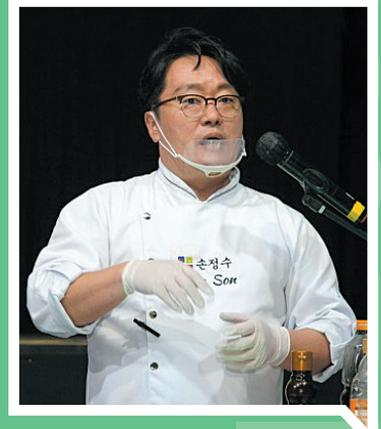
책에 실린 50개 요리는 현지인들이 조리해 판매하는 퓨전식 한국요리가 아닌, 기본에 충실한 한국식 조리법을 담았다. 브라질 음식은 남미의 다른 나라와 달리 주식인 쌀인데다, 국물 요리가 보편화됐고 밥에 반찬을 곁들여 먹는 문화가 한국과 유사하다고 한다.

K-드라마와 K-영화,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인들이 불고기, 파전, 비빔밥을 매우 좋아하고 있지만, 포르투갈어 한식 책자는 그간 없었다.

손 씨는 "드라마를 본 현지인들이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한식당이나 실내포차를 찾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인들이 한국식당을 열어 한식을 흥내 내 영업을 하지만, 그 맛이 정통 한식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메뉴판도 없는 실정이라서 한식 정체성을 찾고자 요리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11살 때 부모와 함께 브라질에 이민한 손 씨는 2011년 현지에 있는 한 일본 식품점 직원이 '김치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충격을 받고, 이후 한식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그는 "내년 한인 브라질 이민 60주년을 맞아 한식 요리책이 양국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문화와 한식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정의 아들’

#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별세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끌어내... 국민훈장 모란장 받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헌신한 ‘임정의 아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이 8월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김 회장은 독립운동가 김의한(1900~1964) 선생과 ‘임정의 안주인’ 정정화(1900~1991) 선생 사이에 1929년 출생했다.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조선민족대동단’ 총재인 김가진(1846~1922)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 태어나 김구, 이동녕, 이시영 등 임정 인사들의 품에서 자랐으며, 임시정부 선양(宣揚)에 혼신의 힘을 쏟아 ‘임시정부의 아들’, ‘임시정부의 산증인’으로 불렸다.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김구·조소앙·엄항섭 같은 분들은 아저씨, 이동녕·이시영 선생은 할아버지라 불렀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고인은 1939년 류저우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 대원으로 항일전 상이군인 위문 활동에 참여했으며, 아버지를 도와 자료 수집, 광복군 단파방송, 광복군 선전지와 한독당 간행물 발행 작업에 참여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중국 상하이→항저우→난징→창사→광저우→류저우→치장→충칭으로 이어진 임시정부 이동 경로는 김 회장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장 경로이기도 했다.

해방 후 귀국해서는 기자, 저술가, 경영인으로 활동했다. 2004년 김 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사단법인 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임시정부를 제대로 알리고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했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발의부터 개관까지 결실을 끌어낸 것이 큰 업적으로 꼽힌다. 이러한 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3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김 회장의 평생은 뱃속까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와 이어져 있다. 그는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어떡하든 남북 간 평화가 정착해서 교류가 많아지면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이라 믿는다”며 남북의



고(故)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의 생전 모습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의 부인 김숙정(왼쪽에서 3번째) 씨가 지난 3월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남편을 대신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고 있다.

평화 공존을 마지막 소원으로 밝혔다. “나이가 많지만 평양에 지사를 차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할 수 있다면 좋겠다”던 김 회장의 바람은 유지로 남았다.

유족으로는 딸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 등이 있다. 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오폭읍 엘리시움 공원묘지에 잠들었다. [▶](#)

# 캐나다 동포 신용구, 코리아안투어에서 ‘코리아 드림’ 이뤘다

## KPGA 우승종합건설 오픈 최종일 역전극으로 생애 첫 우승

캐나다 동포 신용구(31)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안투어에서 ‘코리아 드림’을 이뤘다. 신용구는 8월 14일 전남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KPGA 코리아안투어 우승종합건설 오픈(총상금 7억 원) 최종일 연장 승부 끝에 정상에 올랐다.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친 신용구는 5타를 줄인 강경남(39)과 함께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18번 홀(파4)에서 치른 두 번째 연장전에서 신용구는 3m 버디 퍼트를 넣었다.

세 살 때 이민 간 캐나다에서 열세 살 때 취미로 골프를 시작한 신용구는 미국 대학 무대에서 골프를 하다가 캐나다 매킨지투어와 차이나 투어, 그리고 콘페리 투어 등 미국프로골프(PGA) 하부투어를 거쳐 2019년부터 코리아안투어에서 뛰고 있다.

이번이 신용구가 출전한 49번째 코리아안투어 대회였다. 프로 대회 우승은 2015년 PGA 차이나투어 우한오픈에 이어 두 번째다.

신용구는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지난해에는 다섯 번 톱 10에 이름을 올리며 상금랭킹 21위(2억793만 원)에 올라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는 다섯 번이나 컷오프를 겪는 등 다소 부진했으나 3주 여름 휴식기를 마치고 출전한 하반기 첫 대회에서 고대하던 생애 첫 우승을 따내는 감격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1억4천만 원.



전남 영암군에 있는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에서 8월 14일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4회 우승종합건설 오픈’에서 우승한 캐나다 동포 신용구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구(맨오른쪽)가 전남 영암군 사우스링스 영암 카일필립스 코스에서 열린 KPGA 코리아안투어 ‘제4회 우승종합건설 오픈’에서 우승한 뒤 동료들의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신용구는 “한국에서 너무 우승하고 싶었다. 이번 대회 때는 샷이 썩 좋거나 자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차근차근 풀어갔던 게 우승으로 이어졌다”면서 “빨리 2승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동선두 이동민(37)과 윤성호(26)에 3타 뒤진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신용구는 11번 홀까지 3타를 줄이며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다.

12번 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16번 홀(파4) 버디로 공동선두에 올랐다. 신용구는 “경기 전에 5언더파를 치면 연장전은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15번 홀에서 순위표를 보니 선두에 1타 뒤져더라. 2타를 더 줄이면 우승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먼저 경기를 끝낸 강경남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용구는 18번 홀(파4)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3m 버디 퍼트를 놓쳐 연장전에 끌려갔지만,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연장전을 파로 비긴 신용구는 두 번째 연장전에서 티샷한 볼이 왼쪽으로 휘었지만 카트 도로에 떨어져 구제를 받는 행운을 누렸고, 비슷한 거리에서 시도한 강경남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자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홀에 떨쳤다.

“강경남 선배의 기량을 알고 있어 버디를 잡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샷은 워낙 잘 쳤다”는 신용구는 “버디 퍼트는 라인이 보였다. 들어갈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 있게 쳤다”고 말했다. **창**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올려 퍼진 한류

## 총 100회 무대 오른 한국 공연 9편 호평



1.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펼쳐지는 '코리안 쇼케이스'
2. 국립현대무용단이 이경은 안무가와 제작한 '브레이킹' (BreAking)의 한 장면
3. 에든버러에서 진행되는 'K팝 워킹투어'
4.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 배우 겸 에든버러 프린지 협회 회장 피비 윌러-브리지(오른쪽)
5. 에든버러에 설치된 한국문화 체험관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복을 입어보는 관객들

“공연 안내를 보고 찾아왔는데 재미있어요.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 참여한 다른 한국 공연들도 다 보려고 해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공연 관련 일을 한다는 30대 여성 이지 씨의 말이다.

8월 8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섬머홀 극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연극을 보던 관객들이 킥대며 웃음을 참다못해 폭소를 터뜨렸다. 소극장 연극 '메리, 크리스, 마쓰'에서 배우 한 명은 거의 한국말로 연기를 했고 때로 영어 자막이 등장했지만, 감상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였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올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코리안 쇼케이스'를 주제로 7편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 중 '메리, 크리스, 마쓰' 등 3편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로 선정된 작품 중에서 에든버러 프린지 참여 극장들이 흥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직접 골랐다.

연출 겸 주연인 조예은 씨는 “상황에 맞춰서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넣어 극을 재구성했는데 언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한국에서보다 관객들의 반응이 더 적극적이고, 웃음이 나오는 지점이 달라서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동안 에든버러 프린지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사가 거의 없는 '넌 버벌' 작품들이 주로 참가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의 도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세계 각국에서 3천여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성적은 초반 홍보와 이후 입소문 등으로 가려진다. 따라서 후반부에는 관객이 거의 찾지 않는 공연도 수도무다하다. 이 때문에 이날 에든버러 중심지 로열마일에선 수많은 공연팀이 전단을 돌리거나 미니 공연을 하면서 호객을 했다. 이번 에든버러 페스티벌(인터내셔널 페스티벌 2편 포함)에는 주영한국문화원의 지원으로 한국 공연 9편이 총 100회 무대에 올랐다.

### 한국팀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참가는 9년만... 현지 언론도 관심

한국 팀들은 최근의 한류 인기 덕을 보고 있다. 주영한국문화원 관계자는 “길에서 전단을 돌릴 때 한국 공연이라고 하면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무용단 'BreAking' 팀은 영국 ITV의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에 소개되기도 했다.

같은 기간 펼쳐지는 클래식, 오페라, 정극 등 위주의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안무가 왕헌지(왕헌정)의 ‘왕 라미레즈 컴퍼니’가 한국 예술인으로선 9년 만에 초청받았다. 스코틀랜드 대표 매체 스코츠만은 조성진 공연에 별점 5개 만점을 매겼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과 프린지의 한국 공연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일본, 대만 등 약 10개국이 자국 공연팀을 지원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규모일 뿐 아니라 영미권 공연예술 분야 투자 자금이 몰리는 주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공연 팀이 자비를 들이고 직접 절차를 밟아서 프린지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에도 공연팀 선정에서 정부 지원 여부는 꽤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한국은 에든버러 인터내셔널에 2011년 정명훈이 이끌던 서울시향, 안은미 무용단 등이 처음 초청받았고, 2013년 백남준 전시가 마지막이었다.

이정우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면 우리 공연가들이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와 접촉해서 다음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주영한국문화원이 이날 개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0년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로 프린지 협회 회장을 맡은 피비 월러-브리지도 방문해서 한글로 이름이 적힌 부채를 받았다.

### ‘코리아하우스’로 한복·한식 등 홍보… ‘한국의 밤’엔 유명 배우 등도 참석

이번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 행사도 펼쳐졌다. 이정우 원장은 “한 달간 문화에 관심 있는 약 500만 명이 에든버러를 찾으니 이때를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복, 전통 놀이, 한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하우스’가 운영됐고 한국 여행 상품권 경품 행사, 에든버러 한국 워킹투어 등도 있었다. 이 원장은 “내년에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에 6개 팀이 초청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행사에 초청되면 적은 비용을 지원하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는 매년 8월이면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고, 이때 개최되는 여러 축제를 통칭해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고 부른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 후인 1947년 문화 부흥과 예술을 통한 단합을 위해 조직됐고, 에든버러 프린지는 그 ‘주변부’(fringe)에서 작은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공연하며 시작됐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은 아비뇽 페스티벌, 세르반티노 페스티벌 등과 함께 세계 4대 공연예술축제로 꼽힌다. **창**

최윤정 연합뉴스 영국 런던 특파원

## 재외동포재단, '2022년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개최

'역대 최대' 50개국 450명 참가... 차세대 교육 위한 열정 확인

재외동포재단이 8월 2주간의 일정으로 '2022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1차(8월 15~21일)와 2차(8월 24~30일)로 나눠 진행됐다.

'한글학교, 우리 민족을 잇고 세계를 품다'란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인원인 50개국 450명의 교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는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차세대 교육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올해는 글로벌 시대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육 역량 강화와 세계 시민 교육, 한국 역사·문화 집중 연수 등 교육 현장의 요청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김경일 아주대 교수의 '교사의 자존감 지키기' 강의, 김성효 군산



재외동포재단 주최 '2022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장면

동초등학교 교사의 '글쓰기 수업', 송용진 '송내관의 재미있는 식교육현장' 대표의 '궁궐 기행' 등은 큰 호응과 감동을 끌어냈다.

참가 교사들은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은 모두 한글학교의 대면·비대면 수업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을 만큼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선물이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한층 성

장했으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등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며 한글학교를 지켜오신 선생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한글학교의 발전과 차세대 교육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호주한인총연, 멜버른서 한인 차세대 육성 포럼 개최

정치·교육·문화 등 주류사회 진출 경험 전해

호주한인총연합회는 한인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포럼을 8월 27일 멜버른시 소재 빅토리아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인 2세 등 차세대와 지역별 한인회 관계자, 정치·교육·문화 분야 주요 한인 인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강정식 호주주 한국 대사, 현광훈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수도 캔버라가 있는 수도준주(ACT)의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자유당의 새 대표인 한국계 엘리자베스 리(한국명 이슬기) 의원 등도 자리해 차세대와 교류했다.

호주와 미국 할리우드 등에서 200여 편의 광고와 영화 제작에 참여한 오창원 항공촬영 감독이 차세대 멘토 강사로 나서 드론 촬영



호주한인총연 주최로 8월 27일 멜버른시 빅토리아한인회관에서 개최된 한인 차세대리더 육성 포럼에서 단체 기념사진 찍는 참가자들

분야의 강자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전했다.

유동렬 멜버른대 교수는 '사막 지역의 물과 기후 문제'를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차세대의 역할 등을 얘기했다. 방산기업인 한화디펜스의 리처드 조 호주지사장과 송지연 멜버른대 교수의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리더십' 강연도 이어졌다.

김진성 호주한인총연 회장은 "차세대가 주류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선배들의 경험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마련한 행사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해서 멘토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재일동포 인권·다문화 공생 배움터 들어선다

코리아NGO센터, 역사·문화·인권 프로그램 운영키로

일본 관서지방의 재일동포 최대 집거지인 오사카시 코리아타운 이쿠노(生野)구 쓰루하시(鶴橋)에 재일동포 인권·다문화 공생 배움터가 들어선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재일동포의 인권 신장과 민족교육에 앞장서 온 코리아NGO센터(대표 박진웅·임범부)는 오는 10월 '이쿠노 코라이브스 파크'(IKUPA)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IKUPA는 지난해 폐교한 미유키모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세운다.

박진웅 대표는 "IKUPA의 전신인 미유키모리 초등학교는 재일동포 민족학급을 운영해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받았던 곳"이라며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다문화 공생의 배움터로서는 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일동포의 역사와 문화 및 인권 문제를 알리는 각종 교육과 전시를 비롯해 교재 제작 및 배포, 영상 제작을 활용한 정보 전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발족한 코리아NGO센터는 이 지역에서 '거리학교' 역할을 해왔다. 현장체험 학습, 수학여행, 교원 연수, 일반연수 등으로 온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글 강좌, 김치 담그기, 국악 강좌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일동포의 역사와 한국을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들어설 인권·다문화 공생 배움터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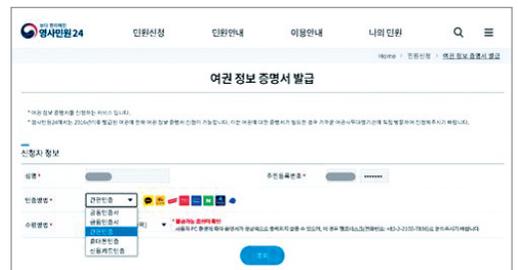
코리아NGO센터는 센터 입주 및 전시물·교육 기자재 제작을 위한 예산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성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기부 받고 있다. 기부자에게는 센터 소개 자료를 보내고, 홈페이지 기부 명판에 이름을 게재한다. 후원 참여 등은 홈페이지 (<https://korea-ngo.org/>)를 참조하면 된다.

## 민간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 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 온라인 영사 민원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국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만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이들 서비스에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물 여권 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민원24' 간편인증 화면

#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로 떠나는 여행

**1**세기 무렵 김수로가 건국한 가야(伽倻)는 초기에는 금관가야, 후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로 나뉘어 바람에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대가야는 철(鐵)을 바탕으로 무력을 앞세워 562년 멸망 때까지 경남 서남부와 호남 동부 일대를 아우르는 거대 세력이었다. 가야연맹체의 맹주로서 대가야는 백제·일본·중국 등과도 활발히 교역해 경제 발전과 문화 융성을 이뤘다.

삼국사기 ‘고령군조’에는 “대가야국 시대는 시조 이진아시왕부터 마지막 왕 도설지왕까지 16대 520년간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대가야는 554년 백제와 연합해 신라를 공격했으나 대패하고, 이후 562년 신라에 복속됨으로써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신라는 대가야의 지배층을 뿔뿔이 흩어져 살게 했고, 사료도 거의 남겨 두지 않았다.

경북 고령군의 ‘지산동 고분군’(池山洞 古墳群·사적 제79호)은 대가야의 왕과 왕족, 귀족들이 묻힌 신성 구역으로, 대가야의 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적이다. 고분군은 1906년 일본인 세키노 다다시가 처음 발굴 조사를 시작했고, 유물 대부분을 일본으로 유출됐다. 해방 이후 1977년에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44호와 45호 고분을 발굴 조사했다. 무려 704기에 달하는 지산동 고분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과 2015년 우선목록에 등재됐고, 현재는 정식 등재를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 대가야 융성 보여주는 순장묘 44·45호 고분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군 대가야읍을 병풍처럼 감싼 주산(主山·310m)의 남동쪽 능선 위에 있다. 주산 구릉 곳곳에는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수많은 고분이 무리를 짓고 있다. 주산 능선을 따라 줄지어 선, 아기자기한 무덤들 사이를 걷는 맛은 꽤 이색적이다. 고분군은 대가야가 대대국가로 발전하는 400년을 전후해 조성돼 신라에 멸망 때까지 대략 160여 년간 조성됐다고 한다.

경북 경주의 고분이 대부분 평지에 있는 것에 반해 고령의 고분군은 산 능선과 중턱을 따라 오밀조밀 붙어 있다. 능선 위로 올라갈수록 무덤의 크기가 커지는 데 이는 왕의 힘이 세지면서 더 높은 곳에 더 큰 무덤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산동 고분군은 봉분이 없는 경남 김해의 대성동 고분군과 달리 봉분이 봉긋하게 높다. 특히 주산 아래 능선을 따라 형성된 고분군은 높이와 규모가 웅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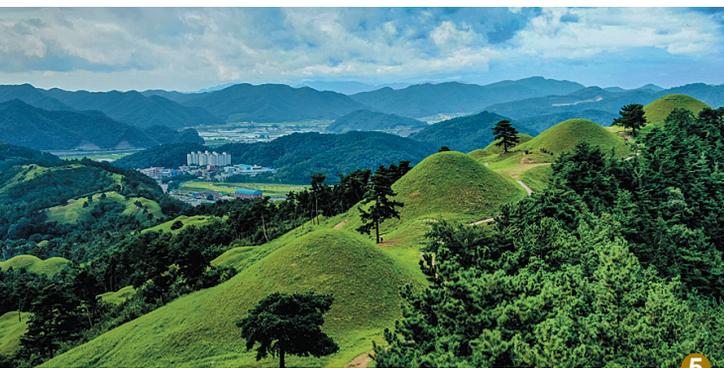
주산 정상부에는 봉분 지름 20m가 넘는 대형 고분군이 버티고 있다. 그중 44호와 45호 고분은 베일에 가린 대가야의 역사가 빛을 보게 되는 획기적 계기가 됐다. 두 고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된 순장묘로, 순장 당한 사람들의 뼈와 토기, 철기 등이 대거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1. 지산동 고분군의 석실묘 모습
2. 대가야 왕릉전시관에 전시돼 있는 다양한 토기들
3. 대가야박물관 내부의 기마병 조형물
4. 우리나라 최초의 순장묘인 지산동 44호 고분
5.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의 전경



4



5

### 1천500년 전 ‘대가야 양식’ 자랑하는 유물들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대가야의 독특한 토기와 철기, 말갯춤을 비롯해 왕이 쓰던 금동관과 금귀걸이 등 수많은 유물도 쏟아져 나왔다. 대가야의 토기는 부드러운 곡선미와 풍만한 안정감이 특징이다. 굽다리접시는 접시 모양이 납작하다. 팔(八)자 모양으로 벌어지는 굽다리에는 좁고 긴 사각형 구멍이 일렬로 뚫려 있다. 긴 목항아리에는 긴 목이 부드럽게 좁아 들어 몸체 부분과 S자형 곡선을 이루며 여러 겹의 정밀한 물결무늬도 그려져 있다.

장신구에서는 정밀한 세공기술을 보여주는 화려함을, 튼튼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갑옷과 투구에서는 무사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30호분과 32호분에서 나온 금관은 대부분 금동으로 만들어졌고 신라의 나뭇가지, 새 날개 모양 장식과 달리 풀잎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국보 138호로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돼 있다.

주산 능선 아래에 있는 대가야 왕릉전시관은 지산동 고분군 44호의 내부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당시 무덤 축조 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 모습, 부장품을 직접 볼 수 있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최적의 장소다.

고령 관광 때 대가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가야박물관도 필수 방문 코스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역사관은 대가야의 여명과 성립,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을 테마로 꾸며져 있다. 

대가야의 수도였던 고령읍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44호 고분은 지산동 고분군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능선 정상 바로 아래에 있다. 이 고분은 밑지름이 27m에 이르며 가운데에 왕이 묻힌 큰 석실이 있고, 주위에 토기류·마구류·장신구 등 부장품을 넣는 석실 두 개와 순장자들의 무덤 다수가 있는 형식이다. 순장자 무덤에서는 남자가 머리 방향을 반대로 한 채 반듯이 누워 있는 인골, 30대 남자와 8세 여아가 함께 묻힌 인골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왕의 죽음은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 국가 지배체제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시신을 가매장한 뒤 묘터를 조성해 본 매장을 하기까지는 인력 수백 명이 투입됐고 수개월이 걸렸다. 45호 고분은 44호 고분에서 산 위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봉분 지름이 28m에 달한다.

## 재외동포재단, 흥범도 장군 유해봉환 관련 카자흐 고려인 초청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8월 16일 '제77주년 광복절 계기 국가보훈처 초청 행사'로 모국을 찾은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흥범도 장군 유해봉환에 기여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들이 참석했다. 고려인협회장들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활동과 현지 현황을 소개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대한 재단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행한 이번 모국 방문 행사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 지속적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들이 8월 16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7번째)과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재외동포재단, 9월 4~8일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개최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있다' 주제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를 초청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2022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 대회'가 9월 4~8일 닷새간 서울 여의도의 콘래드 호텔 등에서 열렸다. '세계 속, 한국이 있다. 차세대가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18개국 정치, 경제, 법률, 예술, 시민단체(NGO)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차세대 리더 65명과 국내 청년 10명이 참여했다.

2020년 포브스지가 '주목해야 할 30세 이하 인물 30'에 선정된 재미동포 애나 김 리 라이오네스 스마트 공동설립자, 송종혁 호주 연방 검찰청 검사, 드라마 '파친코'에서 '모자수' 역을 맡은 재일동포 3세 연극·영화 배우 박소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첼리스트 겸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텐 일리아 등이다.

4일 개최식은 전 유엔 대사인 오준 브세이더칠드런 이사장의 '글로벌 시대의 세계시민 의식과 한국 청년'이란 주제의 기조 강



'2022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개막 행사에서 태극기 퍼포먼스 펼치는 참가자들

연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주제 영상 상영, 환영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국내외 차세대 리더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비전을 모색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일에는 쿠바 한인 후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전후석 감독이 진행하고, 배우 박소희와 작가 송애나, 이규창 키노33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여하는 공감 콘서트가 열렸다. 6일에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한국이민사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드는데 중요한 축을 담당할 재외동포들의 역사를 공유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 1천50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행사에 참여했다.

## 재외동포재단, 제주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세미나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한인이 갖는 공공외교 역할'에 대해 토론했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9월 15일 제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한라홀에서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미호건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 부인, 드라마 파친코에 '모자수' 역으로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배우 박소희 씨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참여했다.

유미호건 여사는 주제발표에서 "재외동포들은 어디에서 살든 각자 부유한 삶을 영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도 기여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9월 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 한인의 공공외교' 주제 세미나

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고, 세계 곳곳에서 외교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소희 배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국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모범이 되게 행동해야지, 그릇되게 살면 한국도 나쁘게 바라본다고 당부했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공외교의 역할자이며, 거주 국가와 모국 간의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공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코리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17회 공존과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을 계기에 열렸으며, 유튜브(Jeju Forum 제주포럼)를 통해 생중계됐다.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한글의 최전선, 지구촌 한글학교 스토리

박인기 · 김봉섭 / 푸른사상

한 세기 전부터 세계 곳곳에 한인들이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한인 1세대, 2세대에 이어 이제는 5세대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는 점점 잊어가고 있다. 언어는 한 민족의 문화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사라지거나,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한글학교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습 등 문화 전반을 가르치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교육기관이다. 신간 <한글의 최전선, 지구촌 한글학교 스토리>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알리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책은 6부로 나뉘어 한글학교의 역사와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일상, 한글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재외 동포들이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조선족 소설사

최병우 / 푸른사상

한인 문학은 한반도 내 문학뿐만이 아니라 재일 동포와 고려인, 미주·유럽·호주 등의 동포 문학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민족 전체의 문학을 말한다. 문학은 삶과 사회적 배경이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세계 곳곳에서 사는 한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신간 <조선족 소설사>는 내국인들도 조선족의 삶과 문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조선족 문학은 중국의 시대 상황과 사회 발전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했다. 조선족 소설은 한때 중국의 정책과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순수한 문학성을 추구해오고 있다. <조선족 소설사>는 조선족의 이런 역사를 파악해 시대별로 구분하고 변화 양상을 정리했다. 조선족 문학은 재외 한인의 문학 중 가장 역사가 깊고, 작품 양이 많아 한인 문학의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번 연구가 세계 한인 문학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오사카서 고대 한일교류 기념 '시텐노지 왓소 축제'**

오사카왓소교류문화협회는 일본이 백제 등 고대 한반도 및 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해온 것을 기념해 오는 11월 5~6일 이틀간 오사카시 나니와노미야(難波宮)공원에서 '시텐노지(四天王寺) 왓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왓소'라는 뜻을 담은 이 축제는 재일오사카신용조합의 후원으로 1990년 시작됐다. 2000년에 신용조합이 무너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가 2005년부터 일본 대기업의 후원으로 이어가고 있다. 재일오사카민단은 양국 교류의 상징적인 축제라며 매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축제의 대표 행사는 양국 전통 복장 퍼레이드다. 신화시대부터 아스카(飛鳥)·나라(奈良) 시대 등 일본과 백제에서 조선왕조까지 한국의 시대별 전통 옷과 분장을 한 시민 1천여 명이 가장행렬을 펼친다.

**미주 한국학교 교사들 "K-종이접기 세계화에 참여하겠다"**

미주 한국학교 교사들이 한국의 종이접기를 미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교장 등 300여 명의 참가자는 8월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홀리데이 인 LA 미라다에서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KOSAA) 주최로 열린 '제23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에 참가해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의 기조 강연을 듣고 종이접기 집중 지도를 받았다. 대회는 KOSAA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계를 품은 한국어 통합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 이사장은 'K-종이접기 세계화로 새 한류 창조'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세계 최고의 우수한 종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독창적인 K-종이접기 문화의 전통 역사를 발굴해 밝히고, 미국에서도 K-종이접기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남도국악원, 해외동포 국악단체 초청해 전통예술 연수**

국악인 양성과 전통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이 재외동포 국악 단체를 초청해 전통예술을 전수하는 '2022 재외동포 국악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도국악원은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한 9개 국가에서 190여 명을 초청해 8~11월 4개월간 5차례에 걸쳐 연수를 시행한다. 명현 원장은 "전통예술의 해외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고 국악을 진흥하기 위한 연수로, 국악 인프라가 약한 국가 등을 우선으로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한인총연,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 출판기념회 10월 개최**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유제헌)는 유럽 22개국 한인들의 이주사와 발자취가 담긴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 출판 기념회를 오는 10월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1층 이병영홀에서 개최한다. 4권으로 구성된 책에는 일제강점기 때 프랑스에서 결성된 재법한국민회에서부터 독일 파독 광부·간호사와 구조선 봉공 후 동유럽에 진출한 한인 이야기 등이 담겼다. 행사 후에는 인천으로 이동해 4일까지 유럽한인회장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각국 한민족 청년 지도자들, 10월 고국에 모여 다양한 체험**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총재 김덕룡)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8박 9일 동안 서울, 파주, 수원, 용인, 인천, 경주, 산청, 공주, 부여, 군산, 완도 등에서 '제9차 세계한민족청년지도자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는 병영 문화를 비롯해 전통문화와 한류, 정치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재단은 해외 초청 참가자와 국내 체류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후원한다.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okf.or.kr)로 보내주세요

## 한국에 혼자 남은 고아

**내** 나이 20대 후반이던 1970년대 중반, 동생들은 하나둘 미국으로 떠났다. 한 여동생은 남편을 따라 미국에 이민했다. 그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은 다른 여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이어 부모님마저 초청을 받아 동생들 곁으로 떠나셨다. 결국 한국에 남은 건 나 혼자였다. 일에 북여 살던 젊은 시절엔 혈육이 태평양 건너편 나라에 산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잘사는 나라에 간 동생들은 '미제 물품'을 시시때때로 보내줬다. 내가 두 아이를 기르는 동안 그 당시로서는 매우 귀하던 아동복, 간식 등을 아낌 없이 보냈다. 사업가도 아닌 동생들이 그것을 보내기 위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당시 나는 상상을 못 했다.

일흔 살이 넘으면서부터 설이나 추석 혹은 생일이 되면 내가 '고아' 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주변에 부모 형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사이 맨 먼저 이민한 언니의 초청으로 그곳에 간 여동생들은 미국인과 결혼했다. 미국인 제부들은 직장인이라 전근을 가끔 했다. 동부에서 서부, 남부 등지로. 덕분에 나도 미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 있었다.

내가 미국에 가면 동생들은 언니를 즐겁게 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양품점에서 재봉틀을 놓고 즉석에서 바지 밑단을 줄여줬다. 돈을 버는 어머니도 여러 번 접은 미국 돈을 내 손에 슬쩍 쥐여주셨다.

나는 동생들의 후한 대접, 어머니의 연민 가득한 사랑을 아무렇



이경자  
소설가

지 않게 받았다. 나도 물론 한국 고춧가루, 들기름, 미역, 다시마 등을 미국으로 가져가긴 했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 동생들의 집은 서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넉넉해 보였다. 그들의 부엌에서 풍기는 버터, 커피, 쇠고기, 아보카도, 망고 등의 향기는 내 사치를 만족시켜줬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재외동포 문학상의 산문 부문을 심사하라 동포들의 수필을 읽으면서 가슴 뭉클한 경험을 하게 됐다. 부모 형제로부터 받기만 하던 나의 몰염치를 깨달아서였다. 미국이 다민족 국가라 하지만, 그래도 주류 사람들 사이에서 장사하고 직장을 다니는 일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을 때나 경제력의 차이로 겪는 동포들 간의 괴리감이나 소외

감에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지... 나는 이런 점을 상상도 못 했다는 걸 깨달았다.

부끄럽게도 내가 그동안 부유한 미국의 제품을 받아쓰는 것에 우쭐하기만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산문을 심사하는 동안 동생들에게 마음으로 길고 긴 반성문을 하염없이 썼다. 그들이 된장이나 청국장을 먹을 수 없고, 마늘 냄새를 피우지 않으려고 요리에 신경 쓴 것, 그것이 슬픔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빈민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에 이르렀고, 전 세계가 한국 주변으로 가깝게 다가온 듯한 지리 감각, 문화 감각은 오로지 세계 곳곳에서 나가 사는 재외동포들 덕분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창**



## ‘2022 코리안 페스티벌: 120년의 꿈’을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오는 10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2 코리안 페스티벌: 120년의 꿈’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 월미도에서 한인 102명이 멀고 먼 바닷길을 건너 미국 하와이로 이주에 나선 지 120주년을 맞아 열리는 행사입니다. 재단은 한인 공식 이민 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에서 여는 이 축제를 통해 애국심과 열정으로 살아온 이민자들의 고귀한 정신과 의미를 알리는 공연을 기획해 오늘날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해외 동포들의 우수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송도컨벤시아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은 120년 한인 이민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테마별 코너, 이민자들의 희로애락을 음악으로 표현한 특별 무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개된 이민자들의 독립운동과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한국인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유명 배우와 가수, 이민자 후손 음악인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KBS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10월 9일 밤 10시 40분부터 90분간 KBS 2TV를 통해 녹화 방영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재외동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2년 9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9월 9일: 제7회 중국동포 민속문화 축제 참석
  - 9월 15일: 제주포럼 참석
  - 9월 24일: 재외동포재단 공공외교단 발대식 참석



#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